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언약

(시편 89:1-37)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성실하신 분이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1. 다윗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본문은 구약의 주석으로 매우 독특한 시입니다. 삼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를 모두 무찌르고 평안한 왕궁에서 거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전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삼하 7:13)는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원히’라는 말씀은 시편 89편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또한 ‘성실’이라는 말도 7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본 시의 주제는 1-4절에서 성실하심과 영원, 그리고 언약이라는 말들의 반복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말들은 시편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더욱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1절의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에서 인자는 큰사랑의 복수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스런 태도가 아니라 명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 인자들이 있을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 용서와 평화를 지탱해 주신 것, 하나님 자신의 사랑스런 임재와 오늘을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명백한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3.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찬양한다

1-4절은 삼하 7장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시편 89편의 주제이며 서론입니다. 그리고 다음 5-8절은 주제를 해설하는 것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로 인해 찬양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천사들은 ‘모임’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교회처럼 천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4. 땅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한 후 하나님의 권능은 지상으로 옮겨집니다(9-13절). 여기서 성실하심 자

체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고 방어가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성실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권능을 2가지 영역에서 찬양합니다.

- ① 하나님의 창조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중에 다스리시고 하늘과 땅과 남과 북을 창조하셨습니다.
- ②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알려진 라합을 깨뜨리시고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 승리는 신약의 갈보리처럼 구약의 중심사건입니다.

5. 자기 백성과 성실하신 하나님

14-18절에서 시인은 자기 백성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다른 속성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속성들은 하나님 성품의 기초가 되는 성실하심에 첨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 중 첫째는 의로우심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14절). 그 다음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은 견고하고 신실한 언약적 사랑을 뜻하며 진실하심은 약속한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3가지 속성들은 영광과 힘과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영광스럽고 강하시며 은혜로우십니다.

6. 자기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자기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은 그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로부터 보호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세상 왕들 중에 지존자로 높이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복을 확장시키셨습니다.

7. 징계 중에도 성실하신 하나님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범할 경우 그들은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폐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제33학기 목회자 세미나 내일개강

3월 31일(월) 오후 2시-웨스트minster홀 주제: '현대 사회속에서의 교회(신앙) 교육'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한국교회 갱신연구원(원장 이종윤 목사)이 주최하는 제33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내일(3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교회 1층 웨스트minster 홀에서 개강하여 6월 2일(월)까지 10주간 계속된다.

이번 학기의 주제는 '현대 사회 속에서의 교회(신앙) 교육'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인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 10:10)와 연계된 주제로 정해 모든 교회에서 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교육에 대한 진단 및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예정되어서 교회 부흥이 절실한 모든 개교회들에게 만나와 같은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교시는 지난 학기에 이어 이종윤 목사의 마태복음 강해가 이어지고 2교시는 분야별 주제에 의해 권위있는 외부강사의 강연이 이어지게 된다. 매학기마다 강의실(웨스트minster 홀)이 차고 넘치는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는 목회자신학세미나가 금번 33학기에 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한다.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

5월19일(월) - 5월28일(수) · 프랑스 교계지도자 초청 -4.20일 주일 I II III부 예배시 특별헌금 드려-

5월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10일간 프랑스 교계지도자 32명을 초청하는 제16차 KIMCHI 신학세미나가 열린다. 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4월20일 주일 I II III부 예배시간에 특별헌금을 드리기로 하였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국 교회지도자들을 깨워 복음사역에 열심을 갖게 하는 이번 김치신학세미나에 참가하는 교역자들의 영안을 밝혀 주시어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한다.

김치위원회(위원장 서문석 장로)는 1구좌에 10만 원으로 하고 정성껏 바치되 형편에 따라 1/2구좌(5만원), 1/3구좌(3만원) 혹은 1구좌 이상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모쪼록 참여 못하는 가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성도들의 특별헌금으로 김치신학세미나를 개최해 온 전통에 따라 금년에도 풍성한 헌금과 기도가 모여져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다.

2008년 봄시즌

제8회 화요정오음악회

4월 15일(화)~5.20(화) 매주(화)정오

제8회 화요정오음악회가 싱그러운 봄기운과 함께 준비된다. 2008년 봄시즌 오르간 독주회로 준비되는 화요정오음악회는 4월 15일(화) 정오부터 5월 20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본당에서 저명한 오르가니스트들의 연주로 열린다.

성도와 이웃이 함께 차원높은 음악을 감상하며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꾸밀 수 있고 전도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화요 정오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관람석은 3층에 준비된다.

스데반회 특강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4월 4일(금) 오후 7:30 / 웨스트minster 홀
주제: 크리스찬의 인생관

제2 스데반회(회장: 김규태 집사)는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고, 제14대 국회의원, 신민당 대표최고위원을 거쳐 현재 사단법인 태평양시대위원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동길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의 특강시간을 갖는다.

특강의 주제는 "크리스찬의 인생관"이며, 2 스데반회원들은 물론 일반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사랑부 - 제1회 발달장애인 찬양제 참가

-4월 5일(토) 오후 3시~5시 영락교회 베다니홀에서-

우리교회 사랑부(부장 서춘식 집사)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주최로 열리는 발달장애인 찬양제에 참가하기 위하여 핸드벨, 기타팀이 준비

비중에 있다.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받기를 기다리며 성도님들의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5월4일 어린이·청소년 총동원주일 준비 박차

각부 전도계획 수립 이어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지원부가 주관하고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동참하고 있는 5월4일 어린이·청소년 총동원주일 준비에 본 교회 교회학교도 각 부별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치부(부장 최양진 집사)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378명을 동원 목표로 정하고 교사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유치부 어린이들의 각 가정에서 가정통신문과 태신자 작성 카드를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3월과 4월 주중에 네 차례에 걸쳐 교사들이 삼성아파트 유치원, 도곡렉슬 유치원, 선경유치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전도할 계획이다. 3월 30일, 4월 27일 주일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1부와 2부 예배 후 교회 주변 아파트 지역에서 전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년부(부장 최광성 집사)는 3월23일 "애들아, 교회 가자!" 선포식을 하고 매주 UCC 홍보물을 제작하여 상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역할극을 통하여 홍보에 힘쓰고 있다. 3월30일까지 전도대상자 작성카드를 제출하고 4월 첫 주부터 반별 테이블 카드를 부착하여 기도한다. 수요일과 토요일 대치, 대곡, 대도, 대현초등학교 앞 전도와 놀이터 및 골목 전도, 통신과 심방을 통한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실시하며, 전도대상자, 등록 후 안 나오는 친구, 장기결석자를 찾기 위한 반별 기도회 및 교사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

초등부(부장 우지원 집사)는 장기 결석자를 위한 초청 잔치를 4월 중 학년별로 준비하여 총 227명을 초청할 계획이다. 5월4일 총동원주일에는 400명을 초청하여 한티공원에서 행사를 갖는다. 매 주일마다 오전 8시30분 교사기도회로 모임, 공과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애들아, 교회 가자!" 홍보용 동영상 상영하고 다 함께 표어를 제창하고 대곡, 대치초등학교 앞 전도를 실시한다.

중등부(부장 김시환 집사)는 교적 자료를 정리하여 학교별로 잃은 양 찾기 운동을 전개한다. 중등부 내 학생 수에 따라 7~8개의 주력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별로 겨자씨 모임을 가동, 태신자를 작성하고 전도에 힘쓴다. 또한 학생들이 즐겨하는 싸이월드 일촌 맷기를 활용하여 온라인상의 관계 전도를 시도한다. 5월4일 300명을 동원 목표로 정하고 501호에서 총동원주일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고등부(부장 최차순 집사)는 452명을 동원 목표로 정하고 매 주일 오전 8시30분 교사기도회를 통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다. 공과공부 후에는 한티공원 앞과 대치역, 은마사거리에서 노방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태신자 초청엽서를 발송하며, 문자 메시지도 보낸다.

세상을 이끄는 기독교 교육

이상은 집사(13교구)



해마다 실시하는 교사 교육이지만 오늘은 5월4일 전국적인 교회학교 행사 실시계획이 있어 서인지 더욱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빗속을 거닐며 교회로 향했습니다. 문득 1968년 사라예보 태

풍 속에서 교회학교에 다녔던 어린 시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가르치고 있는지, 과연 내 자녀들만큼이나 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지, 정말 모범을 보이고 있는지,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갈등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더욱 더 쓰임 받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사랑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다른 영혼에 대한 향한 사랑이 넘쳐 나야 합니다. 둘째로, 성실함으로 교사직분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항상 기도의 중보자로서 예수그리스도와 같이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섬길 줄 아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학생들과 동료교사와 교역자들을 섬기는 종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기를 즐겨하여 말씀 가르치

는 방법에 익숙해 져야 하며 가르쳐야 할 내용을 풍부하게 소유하여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준비된 교사로서 나아가고 충분한 역량과 만족감으로 사역한다면 교회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측면은 더욱 더 증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세상교육을 이끄는 기독교 교육이란?", 김치성 목사님의 강의를, 어떻게 하면 교회교육이 세상교육을 이끌 수 있는가?, 지금 이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의 교육방법이 학교의 수업보다 심지어 학원보다도 뒤쳐진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교회 학생들에게 교육적 권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솔선수범을 유도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반응을 예민하게 살피면서 공과공부에 임하고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김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촉진시켜 질문토록 하여 상호 대화와 이해 및 감명 속에 진리가 스며들도록 Imagination을 증폭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어 주일학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성교육을 통한 선한 종교성을 내면화되도록 하여 사회에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보여 주도록 하는 데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님들!

더욱 더 힘냅시다.

서울교회 천사들이여

민병대(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원장)



먼저 서울교회에 무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광룡 집사님과 청년부 친구들이 주일날 하루 종일 앉지도 못하시고 헌혈을 독려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전 안절부절 하였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셔서 주차까지 신경쓰셨다는 말씀을 듣고는 외롭던 말씀입니다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 알고보니 김광룡 집사님은 저의 아이가 다니는 송파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교인들에게 헌혈을 권면하시는 이강인 집사님도 보통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 전사같았습니다. 아니 서울교회 모든 교인들이 그 날은 사랑의 첫걸음을 하시는 순수의 천사같으셨습니다. 64명의 천사들이 고귀한 생명을 나누어주셨지만 더 많은 천사들이 이에 동참하고자 긴 줄을 섰었습니다만 헌혈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분들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하루였습니다. 서울교회 천사님들의 고귀한 혈액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는데 소중한데 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헌혈하신 날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라고 들었습니다. 헌혈로 시작한 사랑의 첫걸음은 어찌면 하나님의 그 길과 통하는 길이 아닐까요? 마침 청년들과 함께 드린 3부 예배도 정말 좋았습니다.

남부혈액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님과 청년부 친구들, 또 사랑의 첫걸음 행사에 동참하셨거나 관심을 가져주셨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의 첫걸음이 이어져서 다음에는 더 큰 사랑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여 봅니다.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방호철 장로 (소요리 문답부 교사)



서울교회는 교육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여러 부서의 성경공부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소요리 문답부가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배우고 깨달아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더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부는 올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딤후 3:14)는 표어 아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신앙의 기초를 확고히 한다는 것과,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책임 있는 지체가 되게 하며 행함있는 삶속에서 실천하는 봉사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

에 이바지 한다는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한 이들이 반드시 1년간 거쳐야하는 소요리 문답반은 서울교회 성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소요리 문답이란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집대성하여 이를 107개의 문답서로 압축한 것으로 52주에 걸쳐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1년 과정으로 백석대학교 교수이신 김은수 협동 목사님의 통합 강의로 매 시간 대학 강의실 못지않은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은 물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므로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거 하는 전도자로서의 책임도 완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소요리 문답부는 매 주일 1부 예배 후 801호, 2부 예배 후 601호에서 두 번의 강의를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만민에게 전도 - 중등부 노방전도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라!

김고은(중등부)

올해 우리 중등부의 부활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등부의 모든 친구들이 공과 공부 후 다 함께 대치역에 나가 찬양하며 미리 준비한 부활절 달걀을 나누어 주며,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과 승리라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단순히 믿는 자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온 인류에게 참 소망의 사건이기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두 즐겁게 큰 목소리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달걀을 나누며 알리고,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던 친구들의 눈동자는 천사처럼 빛났습니다. 비가 내리고 흐렸던 일

기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악기와 보면대를 치우고 나르던 친구들은 전혀 불평 없이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음에도 이렇게 나와서 찬양 드리며 전도하면 좋겠다'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단순 행사 수준을 뛰어넘어 중등부 전체가 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찬양하며 전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을 세상에 전파하는 기쁨과 축제의 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복음 전파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이 어우러져 부활절에 대한 또 다른 추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모든 등 세곡으로 찬양 드리며 현악기와 금관 및 목관악기가 교차하는 전체 앙상블과 현악 합주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임범창 집사가 지휘를 맡는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우리 교회 아멘 관현악단의 연주로 찬양 드린다.

25명으로 구성된 아멘 관현악단은 우리교회 교인들로 구성된 순수 실내악단으로 그간 가사에 의한 성악으로 드러지는 직접적인 표현의 찬양과 달리 우리의 감정을 악기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하여 정화된 감정을 표현한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모든 등 세곡으로 찬양 드리며 현악기와 금관 및 목관악기가 교차하는 전체 앙상블과 현악 합주 등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임범창 집사가 지휘를 맡는다.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동정

아가페 타운 매입 계약이 몇일 미루어졌다. 이것도 우리를 유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기도에 더욱 힘쓰자.

공군사관학교 입학 감사예배



날아라 날아라 높이높이 날아라~!

아름답다, 서울교회여~!



- 득녀 : 8교구 김두일집사(김대호 장로 아들) 김혜영 성도 득녀
-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21회 정기총회에서 총무 최미아 권사, 부회계 정미연 집사가 선출되었다.
- 주간식당 봉사 : 마리아(3.30) 에스더(4.6)
- 금주의 식사 : 강혜진, 안인선 성도 가정(안태현 둘째 아들 첫돌 감사하며), 교회 제공

예배 및 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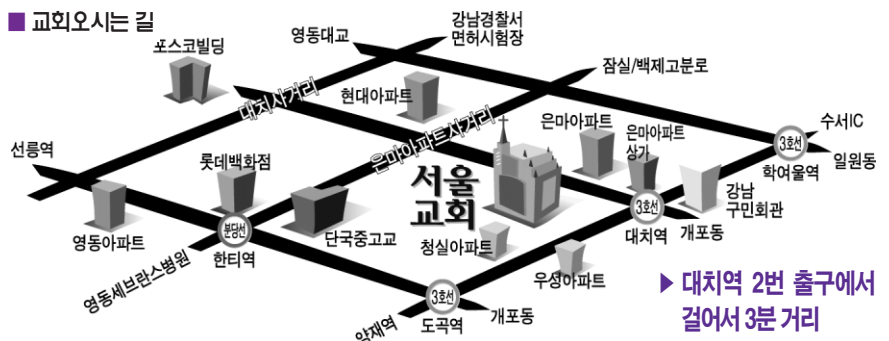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5월4일 '애들이교회가지'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소서.)
2.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3. 서울성경대학, 33학기 목회자세미나, 16차 KIMCHI세미나, 각종 열린프로그램 위하여
4.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